

-기로서니

아무리 ~기로서니, 그렇다고 해도

어떤 이유를 인정한 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물리칩니다. 어미 자체에 질책이 담겨 있어, 상대의 핑계가 거기까지 통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와 형용사	-기로서니	바쁘다 → 바쁘기로서니
과거	-았/었기로서니	잘못했기로서니
ㄹ 어간은 ㄹ 유지	-기로서니	만들기로서니
자주 함께 쓰는 말	아무리	아무리 바쁘기로서니
뒤 절	질책이나 의문문	연락 한 번 못 하나?
중립적인 양보	-더라도	바쁘더라도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어간에 -기로서니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은 유지되며, 앞에 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: 했기로서니, 변이형 기로선들도 쓰입니다.

앞 절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데, 대개 상대가 핑계로 내세운 것입니다. 뒤 절은 그것이 그 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: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연락 한 번 못 하나?

뒤 절은 보통 수사 의문문이나 꾸짖음이며, 앞 절은 거의 언제나 아무리로 시작합니다.

어조가 꾸짖는 것이므로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사람에게 쓰고,윗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. 문체는 격식이 있지만 느낌은 날카롭습니다.

■ 예문

- 1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연락 한 번 못 하나?
- 2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.
- 3 아이가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 심하게 혼낼 일인가.
- 4 급하기로서니 인사도 없이 가 버리다니.
- 5 직접 만들기로서니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.
- 6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포기할 수는 없다.

■ 비교

-더라도 -더라도는 중립적으로 양보하고 넘어가지만, -기로서니는 꾸짖기 위해 양보합니다. 바쁘더라도 연락하세요. (연락해 주세요) / 바쁘기로서니 연락도 못 하나? (연락도 못 했던 말인가?)
-(으)ㄴ들 둘 다 수사 의문문을 취합니다. -(으)ㄴ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, -기로서니는 그 핑계가 거기까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. (소용없다) / 바쁘기로서니 그럴 수 있다. (핑계가 되지 않는다)

-(으)ㄹ지라도 -(으)ㄹ지라도는 질책 없는 평범한 문어적 양보입니다. -기로서니에는 항상 꾸짖음이 담깁니다. 어려울지라도 하겠다. (아무리 어려워도) / 어렵기로서니 그만둘 순 없지. (그건 핑계가 안 된다)
--

■ 주의

- ✗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열심히 일했어요.
-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연락 한 번 못 하나?
뒤 절은 핑계를 물리쳐야 하며 보통 수사 의문문으로 합니다. 중립적인 서술로 끝나면 질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
- ✗ 부장님이 아무리 바쁘시기로서니 연락도 안 하십니까?
- 부장님께서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.
이 어미는 꾸짖는 말입니다. 윗사람에게 쓰면 높임말을 갖추어도 무례합니다.
- ✗ 아무리 화가 나기로서니 그런 말을 했다.
-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.
화가 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를 앞에 놓고, 뒤 절에서 질책을 전해야 합니다.